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미니 프로젝트

분석 및 가공: 이성재, 박석호, 류혜진



테마명:

Magical LED

- 제 2 편 -

CUBE® 카테고리:
Hedone / Technology

Magical LED goes to Dream light

LED의 마법이 꿈의 빛으로 변하다

- 제2편 -



LED 빛의 진화

전자 제품, 조명기구 등 전력이 반드시 필요로 하며, 전력이 존재하는 공간에 LED 적용은 많이 이루어져 있다. 기능적인 용도만이 아닌 장식으로서의 성격이 부가된 LED 조명으로 전혀 다른 무드의 컨셉을 제시한다. 그 후 LED는 이전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분야에도 발을 들인다. 패션, 우드, 스포츠웨어와 같은 전력이 필요로 하지 않던 제품에도 그 범위가 확장되어 판타지 (fantasy)한 무드를 선보인다.

자체 발광하는 드레스는 영화에서 CG처리를 거친 후에나 보이는 모습이었으나 실제 제품으로 보여지고, 이를 응용한 티셔츠나 신발과 같은 일상 생활 소비재가 속속들이 보여진다.

패션과 LED의 만남 FASHION + LED

패션에서 빛은 이용은 야광 내지 형광 물질의 이용으로 반사 되는 빛을 부각 시켜왔었다. 패션과 LED의 만남으로 빛을 이용하여 패션, 즉 패션 머테리얼 (material) 의 변화를 시도한다. 낮과 밤의 변화하는 모습, 판타지 가상 무드를 실현하는 새로운 시도가 패션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Rhyme & reason’

“rhyme & reason” 는 니트의 편안함과 자연스러운 연출에,일루미네이션 (illumination) 효과를 가미하여 사람의 스타일&룩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마치 환영과 같은 불가사의의 세계와 마법과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어 패션과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사용자의 방식으로 다양한 효과가 창출되는 드레스는 니트소재의 스카프와 콤비를 이룬다. 약 24개의 백색 LED를 장착하였다.



designs by mary huang photography by michael sun

FASHION + LED + Sound

테크놀로지에 대한 진보적인 태도는 패션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환각과 환영 등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일루션 컬러로 표현하여 상상력을 동반한 스펙타클 (spectacle) 한 연출이 시도된다. 시간과 공간, 개체와 개체간의 간접적인 접촉이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 현실 속의 판타지가상 무드 “비주얼 디지털 매직” (visual digital magic)을 향한 각 분야의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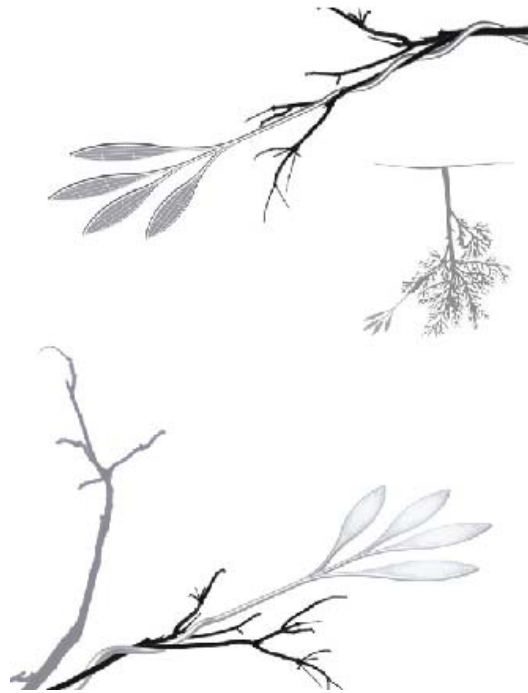
“Beat Dress”

비트 드레스는 패션& 커뮤니케이션 스쿨, 말뫼 대학(Malmö University)의 패션& 기술 코스에서 실시한 프로젝트이다. 드레스에 10개의 LED를 장착하고, 마이크로폰과 소형 등화장치를 마이크로컴퓨터와 연결하여 주위 사운드와 음악에 맞추어 빛이 켜지도록 설정하였다. 사운드가 감지되면 비트와 함께 LED 불빛이 켜지는 프로세스이다.





Street light + LED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사용되거나 보여지는 백색 라이팅은 단 몇 가지에 제한되거나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쿨 파스텔 (cool pastel) 라이팅 컬러는 실제로, LED 컬러를 재조명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최근 트렌드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주목하고 있다.

"Invisible street light"

국내디자이너 '이종오'는 "Invisible streetlight" 라는 이름의 가로등을 디자인했다. 주변조경과의 융화와 식물의 광합성을 기본 컨셉으로 모티브를 얻어 친환경과 에너지 활용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밤에는 그 빛을 마치 낮과 같이 발하게 된다. "Invisible streetlight" 조명 디자인은, 흡수하고 방출한다는 개념에서 광합성과 같은 원리를 가지며, 태양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 백색이라는 차가운 LED 라이팅 컬러를 외부 조명 디자인으로 승화, 상당히 시적이고 미니멀 (minimal)한 비주얼을 제공한다.

나무와 LED의 만남 (Wood + LED)

플라스틱과 메탈 재질의 소재가 주를 이루던 전자 업계에 우드 (wood) , 스톤 (stone) 등의 지속가능 소재가 전자기기에 적용되는 시도가 보여진다. 심플함/미니멀리즘이란 키워드의 개념은 기존 디자인의 단순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 테크놀로지(라이팅)가 부가되는 장식 미를 최대한 배제하고 네추럴 (natural) 소재의 촉감을 추구하는 컨셉으로 변화되고 있다.



White Fruit Radio by Swann Bourotte

오케스트라 현악기에 쓰여지는 고품질의 단풍나무로 제작되어 최고의 사운드와 부드러운 촉감을 제안한다. 화이트 후르츠 라디오는 얇은 우드 안쪽에 LED를 장착하여 사용시 나무안쪽에서 빛이 투과된다. 노브 (knob)도 버튼도 없는 디자인으로, 위쪽 나무 주름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면 볼륨 조절과 튜닝이 가능하게 한다.